



[집사람들? 미션홀 자매들]

**살롬**, 찬바람이 코끝을 얼게 만드는 겨울입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새해가 밝았네요. Full time 사역자로 훈련받겠다고 뛰어든 게 어제같이 생생한데 벌써 사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난 일 년을 떠올려 보니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저를 통해 행하신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하게 저의 근황에 마음 써 주시고 특별히 지난 2011년 세 번이나 가게 되었던 단기선교에 기도와 재정으

로 동역해주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저의 진로와 사역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풍성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2012년 동역자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길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예수님을 만나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성경의 가치관 없이 살아왔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 엄청 긴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2007년 여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외할머니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 가을, 그런 제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 LWM 서울지부 공동체와 만나다

LWM과의 인연은 서울 지역을 개척하러 오신 정혜원 선교사님(지금 저의 리더)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 공동체와 만나게 되었을 때는 갖추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 매번 모임 할 장소를 찾는 것부터 수련회에 갈 차비까지도 함께 기도하며 구해야 했지만 오히려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중에 리더와 함께하는 소그룹 시간을 통해 주되심(Lordship)을 세워가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훈련을 통해 복음을 증거 하는 삶을 꾸준히 세워갈 수 있었고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 년 동안 말씀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이끌어주신 한 분으로 인해 이곳에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무너만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2011년부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서울지부 1호 간사가 되다

올해 저는 서울지부에서 1호 간사가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늘 정직한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간사 임명식에 오셔서 축복해주세요.^^

일시: 2011. 2. 10 (저녁 8:30)

장소: 송파 우리교회 (지하철 8호선 '송파'역 1번 출구 나와서 오른쪽 골목으로 200m 직진)

The Light World Mission(빛세계선교회)는 한국세계선교 협의회, 미전도종족임양본부의 정회원 선교단체로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훈련, 무장, 파송하여 남은 선교를 모든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국, 아프리카, 인도,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백만 명의 자국민 선교사를 세워 미전도 종족으로 파송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WM 서울지역은 2008년에 개척되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캠퍼스와 직장인 사역, 해외선교사역을 통해 전도와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ww.lwmkorea.org](http://www.lwmkorea.org))



### 부르심 앞에 서다

2011년 필리핀 단기선교를 통해 주님은 저를 향한 부르심을 더욱 뚜렷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껏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 리더의 역할을 이제는 제가 시작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주님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은 가슴 벅찬 꿈을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님을 알기에 많이 두렵기도 하고 제게 있는 힘과 능과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갑절이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열왕기하 2:9)

그리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사야 66:20-21)

지금 저의 주된 사역은 캠퍼스 청년사역입니다. 한국학생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로 이 들판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지금 돕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의 자녀이자 일꾼으로 서도록 돕고 그들이 있을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실 분들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 재정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ihartist@naver.com](mailto:ihartist@naver.com) / 010-7272-0405 / 국민은행 801301-01-382798 (이중현)

### 기도제목

1. 2012년도에 계획하시는 것(2월 전도훈련, 캠퍼스사역)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2. 돕고 있는 제자들(민아, Zhang han, Cheavuhun, Rak Rak)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관계들이 열리도록, 이제 막 연결된 Ding Sheng, Frank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도록
  3. 한 달 필요한 사역비와 생활비 (80만원)이 공급되도록(집세, 세금 26만/사역 및 섬김비 30만/ 통신비 8만/ 교통비 8만/ 현금 8만)
  4.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함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전공인 디자인을 생명사역에 사용하고 싶은 소망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고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시도록)
2012. 1. 8 이중현 드림.